

광주 북구청 공무원 업무 과중 불만 '붓물'... "체질 개선"

내부 게시판 성토 글 '뜨거운 감자' 노조 "불필요 업무 경감해야" 논평 북구 "직원 복지 중심 조직문화로"

광주 북구청 일선 공무원들이 과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 공개적으로 대폭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전날 새올행정시스템(내부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글인 '형편없는 급여, 열악한 사무 환경, 끊임없는 신규사업 발굴'(제목 '소통')의 조회 수가 115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댓글이 이 글에 격하게 공감, 광주 북구의 현재 민낯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게시글은 처음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글의 핵심은 신규사업 발굴에서 파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핵심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년 새로운 사책이 마른 갈래 비틀어 찢듯 만들어지고 대부분 '무예산' 사업으로 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한 번 만들어진 사책은 '시책일몰제'가 있다고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우리 북구가 가장 공모사업에 적극

적인 것도 사실이다"면서 "소액 예산이라도 모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직원들이 매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했다. 노조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는 직원들의 땀과 한숨이 깃들여 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직원간 불화, 질병 휴직자 등이 가장 많은 것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탈북'(북구청 공직자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휴직하는 세태를 일컫는 은어)이라는 단어까지 인용하며 "시책과 공모사업을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모든 직원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업무 분장, 법정 사무 외 추가 인원 동원 자제, 불필요한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개선 당위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신바람 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직원 업무 경감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직원 전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두루 들었다. 업무 부담을 줄이는 '일하는 방식 개선'에 힘쓰고 직원 사기진작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직원 복지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인용한 해당 글은 전날 오후 5시에 내부 망에 게시돼 조회 수 1100명 선을 넘어섰다. 북구청 공직자가 1700여 명임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례적인 조회수다. 지지성 댓글 30여 개가 달렸으나 해당 글은 이날 오전 돌연 삭제됐다. 김재환기자

현대삼호중공업, 대졸 신입사원 품질 마인드 함양교육

올해 입사 60명 대상...내달 말까지 2차수로 나눠 진행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며 우수인재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품질 마인드 함양교육을 진행 중이다. 한 달가량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품질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신입사원들의 품질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내역과 외역 공정별 검사 품질 관리 실습, 조립 단계별 정도 주요 관리사항 실습, LNG CSS 품질 관리 및 테스트 등이다. 교육은 지난 1월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60명을 대상으로 30명씩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1월 시작된 1차 교육은 내달 2일까지, 2차 교육은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뤄진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되며,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들어 수주물량 확대에 따라 신입사원 채용도 점차 늘리고 있다. 지난 2021년 54명, 지난해 71명에 이어 올해는 벌써 60명을 채용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호황기에 입사했던 73명 이래 최대 규모다. 수주는 지난해 목표 대비 190%가 넘는 48척, 87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도 이미 LNG선 2척과 컨테이너선 19척 등 총 21척, 34억 달러 가량을 수주해 목표 대비 132%에 이르고 있다. 영남=조대호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광주FC 구단주)이 22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노동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FC 1호 멤버십카드를 구매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광주시 제공)

광주FC 구단주 강기정 시장, 올해 1호 멤버십카드 구매

광주FC 구단주인 강기정 시장이 올해 첫 광주FC 멤버십카드를 구매했다. 강 시장은 22일 시청에서 광주FC 2023 시즌 멤버십카드를 구매, 제1호의 주인공이 됐다. 평소 축구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강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뒤 가장 먼저 광주FC를 찾아 선수를 격려하고, 두 차례 경기를 풀타임 관전하는 등 각별한 구단 사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K리그2 우승과 K리그 승격 보너스로 선수단에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사기를 북돋우기도 했다. 강 시장은 "올 시즌 광주FC가 열정적인 경기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구단인 광주FC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일 대표이사는 "구단주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은 프로축구 발전에 큰 힘이 된다"며 "구단은 포기하지 않는 광주 정신을 승리로써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시장에 이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도 광주FC의 선전을 기원하며 2호 멤버십을 구입했다. 광주FC는 지난 3일 노동일 대표이사의 공식 취임과 함께 2023 비전과 4대 전략을 통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서재욱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오늘 베트남행... '글로벌 도정' 펼친다

농수산물 수출·우호교류 확대·관광객 유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8기 본격적인 글로벌 도정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지난 1월 태국 방문에 올해 두 번째 해외 방문길에 나선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세계로 뚫어주는 전남 대도약' 세일즈 도정을 펼친다. 베트남 방문 기간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 우호교류 지역과의 교류 확대, 전남관광 설명회와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등을 한다. 첫 날인 23일엔 호치민 라벨라 호텔에서 농수산물품 해외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현지 대형 한인마켓과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을 한다. 24일에는 빈프역성을 방문한다. 빈프역성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지방정부 수장이 전남도를 방문해 우호교류 협약을 한 지역이다. 오후엔 만 쁘인 빈프역성 당사기, 전 뒤에 히엔 인민위원장을 만나 실질적 교류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25일엔 동양의 나폴라라 불리는 나트랑에서

'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관광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호치민 한인회와 간담회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코로나 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투자·수출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포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호치민 총영사관을 방문해 전남 관광 홍보와 농수산물 수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속적인 글로벌 도정활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남의 자연환경, 문화자산, 기술력 등을 널리 알리며 전남의 케이(K)-푸드, K-관광, K-컬처의 진수를 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기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1.1배
4분기	125,531원	1.7배	1.7배
3분기	79,147원	2.1배	2.1배
2분기	48,103원	2.7배	2.7배
1분기 저소득층	26,697원	5.3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한국연진공제단
Korea Pension Corpor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리펀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